2023년 [하계] 해외어학연수 설문지

학과: 관광경영학과　　이름: 황지원

2023년 해외 어학연수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바를 작성해 주시면 차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어학연수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②취업을 위해서　　③목적없이 참가　　④기타(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2. 어학연수 이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토익특별반, 토익사관학교 등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3. 이번 해외 어학연수 과정을 친구나 선후배에게 얼마나 추천하시겠습니까?
①아주 많이　　②많이　　③보통　　④안함

□ **전체 반응도**

구분	매우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낮다	기타
해외연수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O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O				

□ **연수 만족도**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어떤점이...
연수국가	O					
교육 프로그램			O			
주말 프로그램		O				
강사진		O				
기숙사		O				
강의실		O				
식사		O				
편의시설		O				
기타()						

□ **교육생 의견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소감 및 건의사항	[좋았던점] - 나이아가라 지역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프로그램 - 홈스테이 경험 [나빴던점] - 루즈한 수업 (간단한 활동들에 과도한 시간이 할애되어 비효율적인 느낌을 받음.) - 교육 자료와 짜임새 미흡 (교재를 대여해주었으나 수업시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음. 자체 수업자료가 없고 선생님이 유튜브와 구글에서 캐나다에 대한 내용을 검색하여 보여주는 방식.) [이것만은 꼭 개선해 주세요] - 사전 공지 부족으로 학교에서 버스카드를 등교 2일차에 나누어 주었으나 당장 버스로 등교해야 하는 일부 학생들이 첫째날 개별적으로 버스카드를 구매하는 불상사 발생. 환불은 이루어졌으나 귀국 직전에 이루어짐.

*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어학연수 소감문>

	이름: 황지원 학과: 관광경영학과	학번: 201957027
소감문	이번 2023년도 하계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이전에 해외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값진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로 인해 대학생활 중 해외에 나가기 힘들었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활기찬 캠퍼스 라이프를 누리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졸업 전에 이런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함께 연수를 간 친구들 모두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 다들 어색하게 출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친한 사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해외에서 한달간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인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값진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 정말 뜻깊은 것 같다. 귀국하면 다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감사했다. Niagara College에서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관광지까지 픽업도 항상 잘 이루어졌고,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어서 캐나다의 아름다운 여름을 한껏 만끽하기에 충분했다. 관광지에서의 시간은 모두 자유시간으로 할당되어서 각자 체험하고 싶은 부분들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도 낮에 한번, 밤에 한번 방문해서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었고, 토론토에서의 시간도 정말 좋았다. 학교가 있는 웰랜드는 자연이 가득하고 평화로운 곳이어서 마음이 편안했고, 반대로 토론토는 마치 서울과 같은 매력이 있는 도시였다. 볼거리가 가득했고, 밤거리가 매우 아름다웠다. 무엇보다 가장 행복했던 부분은 바로 홈스테이이다. 마지막으로 떠날 때는 모두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한 달 만에 정이 많이 들었고, 학교 밖에서도 여러 가지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았다. 비행기로 꼬박 13시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먼 나라에서 이렇게 가족같은 사람들을 만난 것은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고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귀국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기로 하였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층 넓어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이었고, 세계로 널리 뻗어나가는 관광경영학 전공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활동사진>